

이규성 선생의 함석헌 사상의 연구가 갖는 의미

참고:

20년대 말 무교회주의

40년 초 무교회 주의 비판,

일제 말 유영모와 만남 이후 동양 사상의 연구

해방 직후 YMCA 강연회

전체적으로 기독교 대속관 비판->인격의 자주성을 강조

52.8월 샤르댕 사상과 접촉; 우연과 필연, 자유와 선의지, 이성과 계시, 대중과 신

53.7 대선언: 한국 교회 비판,

-55 죄는 참말로 없다.

56.5 사상계,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57년 윤평중 신부와 종교관 논쟁

61년 뜻으로 본 한국 역사

57.3-73 씨알 농장

60년 죄의 고백 이후 61.1 퀘이커 모임에 나감

67년 퀘이커 세계 대회 이후 적극적으로 활동; 단체 신비주의, 적극적 정치 참여

66년 사상계 폐간 이후 70년대 씨알의 소리에서 사회 비판

80년 이후; 타협적

1)이규성 선생의 철학적 근본틀

생명의 내재적 초월성을 전제로 하여 내적 생명의 발견을 통해 우주적 생명과 합일한다.

이는 인식적이며 실천적 전환이다. 이제 허무, 절망, 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 희망, 존재에 도달하며,

우주적 개방성, 우주적 연대를 깨닫는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 투쟁은 먼저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하며, 외부로는 비폭력적이다.

궁극적인 사회는 무정부적. 반자본주의적이다.

이런 틀에서 합리주의의 한계, 이론적 인식의 한계를 비판하고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독재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동시에 비판한다. 합리주의 비판은 칸트,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전개된다.

이런 사상은 동학, 함석헌에서도 발견되며

거슬러 올라가면 주희의 철학, 왕선산, 황종희의 철학에서도 발견된다. => 천인합일, 내성외왕,

서양에서는 쇼펜하우어, 베르그송주의 등에서 발견된다.

이상의 관점은 함석헌 연구에서도 등장한다. 다만 함의 경우 기존의 틀에서 목적론적 세계관의 측면이 추가된다. 이 목적론적 세계관은 우주의 진화론적 발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베르그송적 창조적 진화에 토대를 두면서, 샤르댕과 같이 영의 세계를 최종적 목적에 둔다.

반면 함의 사상 가운데 퀘이커주의의 영향, 후기 씨알 사상도 모두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2) 각 절의 주요 내용

1절 총론: 씨알 철학과 사상의 혁명; 서론 전체 기본 개념을 서술

함의 사상적 특징

① 함은 학술언어로 사유하지 않고, 일상언어 속에서 종교적이고 철학적 의미를 살려낸다. 사실은 가치의 빛 아래서 조명되고 가치 실현의 문맥에서 평가된다.

②함은 또한 과학과 철학을 통일하려 하는데, 과학은 인과를 물으나 철학은 존재의 뜻을 묻는다.

“과학으로 건드리지 못할, 따라서 건드려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세계가 아니라 뜻의 세계입니다.”(생활철학, 전집12, 239)

③함의 세계관을 생명변증법으로 파악한다.

① 생명은 모순 구조를 갖는다. ② 파문처럼 번져나간다. 동시에 거두어 들이려는 경향, 창조와 안식, 확산과 수렴 ③자유이며 통일의 원리, 독특하려 하며 보통이 되려 한다. ④ 생사의 연속, 죽음 덕분에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⑤진화는 의식의 강도에서 단계적으로 증가, 인간의 인격에서 자유를 의식하고,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영과 그리스도적 인간에 도달)

④함은 사상과 혁명을 관계시킨다.

“혁명이 역사를 밀어나가는 거룩한 생명의 운동이 되고, 혁명이 거룩한 정신의 운동이 되어서만 그 제단에 바친 제물은 살아난다. 일을 순화하고 건지는 것은 사상이기 때문이다. 살리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뜻이다.”(인간혁명, 전집 2, 63쪽)

-양심에서 경험하는 우주 전체적 생명과 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영원자의 소리, 천명을 들어야 한다.

“혁명은 어느 일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 명을 바로잡는 것, .. 역사를 짓는 전체를 바로잡는 것”(인간혁명 66쪽)

-혁명은 바다에서 만나는 내적 생명의 시간적 전진과 공간적 개방의 충동을 표현하는 운동

-자기 부정은 지도자 의식, 사람이라는 의식도 거부한다.

-이는 책임의식에서 오는 자기의 죄에 대한 명증한 의식을 요구한다.

-바닥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

-사상의 유격전, 작은 혁명, 생활양식의 변화.

3) 함석헌의 형이상학적 관점

2절 심정과 자유

정신의 본질은 자유와 저항성, 개방성을 본질로 한다.

3절: 문체와 심정

<문체적 특징>

-물음의 반복성

긴박한 위기적 성격, 실존과 사유를 일치시키는 역동성에 의해 촉진된다. 이는 피상적 동일성이 아닌 창조적 반복, 이는 본질적 차이를 만드는 결단의 과정이다.

-선지자, 들 사람의 소리를 닮는다. "피로 하는 말"

-비추론적,

추론적 세계는 주체적 태도의 상실을 의미한다.

존재를 넘어 무를 경험하는 모순의 인격은 절대에 의해 이끌려가는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무를 통해 드러나는 무한의 암연을 들여다 보고 눈이 어지러워진다.

-형이상학적 진리는 심정의 진리이다.

광야의 영혼의 교사는 모순을 심정 속에 집약하는 인격을 전제로 한다.

이는 심리로 환원하는 심리주의가 아니라, 그에게서 진리는 객관적 이념성을 갖는다.

4절 통일적 세계상과 자기의식; 이성과 계시, 인식과 실천의 통일

이성은 좁은 한계를 넘어서, 영혼화되어야 한다. 이성은 진화사의 최후 산물이며, 미래로 열려 있다.

믿음이 세계 해석의 근거이자, 의사소통의 근거

계시는 창조이고, 창조는 사랑의 넘침, 우주는 신의 사랑과 조화가 미려하게 나타난 세계다.

5절 심정의 진리 구조

심정의 구조: 事-思-死-賜

-섬김의 사유

-문화적으로 규정된 나의 죽음,

-거듭난 심정의 우주적 개방성

-영원자의 은총

셸리의 사나운 서풍

성령=사랑

-사랑과 자유의 체험이 수직, 수평의 관계를 통일한다.

-사랑은 자유, 심정의 내적 필연성에서 솟아나는 활동성, 당위나 의무가 아닌 능력. 도덕판단의 폐지.

-죄를 의식하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원천, 그러므로 사랑은 죄를 실재하지 않게 하는 해방의 근거.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 영원자를 향한 것과 죄인에 대한 것, 전자는 종교이고 후자는 정치이다.

“정치와 종교는 다 인간의 생활을 각각 두 면에서 한데 묶어놓은 묶음이다. 하나는 평면에서 하나는 수직에서,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현실에서 하나는 정신에서”(정치와 종교, 전집3, 300)

6절 윤리적 형이상학

베르그송은 비목적론적 진화: 혼용의 복수성 즉 연속되지만 차이를 생산하는 분지의 운동

->사르댕의 영적 진화; 신적 생명

함석헌은 영적 진화,

-영적인 것=은총=사랑

-꺼 붙지 않은 꺼 붙음(불연속성의 연속)

-생명이란 자유를 향하는 노력이며, 반역성을 지닌 것.

-터져 나가는 우주, 긴장과 폭발, 강도의 세계, 고조되는 혼의 세계

-진화의 충력은 과거로부터 작용하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끈은 만유를 앞에서 당기는 필연성이다.

-윤리실천적

역사의 관점-비폭력성의 옹호

생명의 자발성, 자유라는 점에서 개방성을 지니며,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비폭력성을 갖는다.

행위자의 내적 필연성을 나타냈으므로, 비폭력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즉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진정한 실천가는 사회공학자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키우는 월예사이다.

7절: 시간과 자유

현재 시점은 수평적으로는 과거에서 오는 회상과 미래에서 오는 희망이 집중하는 시간이며

수직적으로는 영원자의 상승, 하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중심이다.

전일적 내적 질서는 일회적 예시로서 아는 미래이다. 즉 절대적 미래. 이는 질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이다.

이 순간은 불안의 시점, 위기의 시점, 機의 시점, 희망이나 화석화냐 하는 물음의 시점이다.

-나들이 인생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바람이 나불어 오기 때문에 그리 불려가는 인생(영원히 불어오고 가는 바람소리”(전집10, 360쪽)

역사란 마치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로 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새로 지음, 전집8, 66-67)

4) 실천적 정치적 관점

이는 8절, 자유와 내면의 정치학에서 제시된다.

영원한 생명=하나됨

원융한 하나의 세계==우주적 화해의 전체성

“인간의 모든 쓰레기 찌꺼기를 다 받는 바다보다 넓은 가슴, 모든 더럽, 모든 죄악을 다 태우고, 녹여 버리는 땅속보다 더 뜨거운 마음속, 버릴 생각도 씻을 생각도 다 내버리고, 그대로 안고, 두 눈을 딱 감고, 감는다기보다는 차라리 뻥히 뜬 채로, 저 영원한 님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일이다.”(아름다움에 대해, 자전적 인생론, 정우사, 2003, 123쪽)

전체의식으로 꿰뚫린 개인들이 모인 데서 민은 주체라 할 수 있다.(민족 통일의 종교, 전집 3, 185쪽)

<내면적 자유의 정치학>

-사회공학적 조작주의를 반대, 구도자의 인간주의를 따른다. 실효성이 없는 역경사의 길, 비폭력주의

-산업은 인간을 상품화, 외면적 자유,

개인을 죽이고 노동자화, 획일적 여론, 제도적 학술 예술, 개인은 상스러운 천민으로 된다.

이는 민주주의적 전체주의(토크빌)

- 씨알의 시대

이제 돈을 극복하고, 우주적 전체성에 접속하는 것이 요구된다. 내면적 자유. 이는 부르주아 자유를 심화시키는 것이며, 돈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를 돌파하여, 씨알의 생명성을 드러내는 시대를 지향한다.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존경쟁의 철학을 벗어나 극소와 극대가 영적 실체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우주적 심정과 우주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

-우주윤리, 무정부적 독립성

-재현적 사고와 대의제를 넘어서야 한다. 이는 과도기적. 앞으로 공감적 직관에 기초한 민주주의

-생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게 된다. 전체가 사유한다.

바울의 혁명성

-바닥의 인생을 우주적 생명 안에서 구원

“학자가 제 손으로 책을 찢게 되고 군인이 제 손으로 칼을 꺾게 되는 날”을 대망하며(영원의 뱃길, 전집 9, 49쪽)

-법과 죄, 법이 가능하기 위해 위반의 욕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사랑의 적극적 긍정, 행위의 성취는 무의미해진다.

생명의 본질은 사랑과 자유, 죄는 갈라짐이다.

-민중은 집단주의 산물, 씨알로 대체

-씨알 민주주의=자치

전제주의와 독재자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을 때, 대중은 서로에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 또 다시 군주를 만드는 악순환에 들어간다. 자주성은 이런 순환을 빠져 나오는 주체성의 원리이다.

이런 자주성은 평등한 개방적 연대성을 형성하며, 억압에 기초한 유위의 정치 대신 무위의 정치를 실현한다.

사회주의 진영 몰락 이후, 사회운동은 사라졌다.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성만이 압도한다. 그러나 정치적 양심이 남아있다. 내면의 정치학은 이 상황에 접목되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정치학은 사상의 유격전을 일상 생활 전반으로 확산한다. 그 의의는 여기에 있다.

5) 결론

<저항, 실천, 혁명의 강조>

바가바드 기타; 쿠루족의 두 형제 가문, 아르주나와 크리슈나의 철학적 대화

사회적 실천은 육체적 생사를 초월하는 자아를 확립하며, 도구적 행동이 아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는 내면이 심층에서 자각된 진실이 자발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이다.

“브라마의 빛은 모든 속에 다 있는 것이요, 그것이 비춰주는 몸들의 차이 때문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조금도 없다.”

“부의 정복자야, 너는 집착을 버리고 요가에 굳게 머물러 서서 되고 안 되고를 평등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평등으로 보는 마음을 요가라 하느니라.”

“제 몸을 굽혀 다 지치고 부스러질 때까지 하다가 죽을 뿐이지, 지고 이기고 날카롭고 무디고 하는 데 이르러서는 지 지혜를 가지고 능히 미리 알 바가 아니다.”(제갈량, 후출사표)

자아의 실현, 행동의 결과는 무관심.

유영모에 대한 비판

내면 세계를 각인시켰으나, 불의에 대한 저항을 간과.

무장한 선지자이기보다는 병든 채로 수양하는 선지자이기를 원했다.

<목적론>

생명철학적 사고에 진화론적 목적론적 자연철학을 결부시켰다는 점

-생명은 적응이다. 사람의 높은 정신도 변해가는 환경의 선물.

-생명은 대들 즉 저항이다. 힘있는 능동적인 것이 늘 움직이고 있다. 자발적, 주체적, 그러므로 저항정신

-생명은 창조다. 대드는 본성 뒤에는 끊임없이 새 것을 지어내려는 즐기찬 힘이 움직이고 있다.

<비판>

-목적론적 구조. 그 목적은 자유의 완성.

이는 서구적 인간의 자기도취적 욕망을 실재의 질서로 투영한 것, 또한 그의 우주관은 형이상학적 사변

-계시적 공리를 전제한다.

기독교적 친화성을 유지하면서, 유물론적 운동사에 놀랄 만큼 무감동하거나 긴장을 유지.

영원자의 내재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초월적 낯섬을 옹호.

영원자의 부재, 이는 곧 만물이 탄식하는 기간이다. 자기 부정의 고뇌와 시대 비판적 참여가 갖는 진취성은 그 부재에 대한 감각과 존재의 현현에 대한 기다림 때문이다.

-정치적 주체성으로서 민중, 생각하는 전체를 전제.

민중은 자각적 씨알이지, 균중이 아니다. 씨알의 우주적 연대성을 강조하면서 당파적 주체성을 거부.

-함석헌의 대안은 종교 윤리적이라는 비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말년의 침묵과 올림픽 찬양은 추문으로 남는다. 그는 유물론적 이해에 의해 심화될 필요가 있다. 과학의 폐해에 대한 경계의식이 종교 윤리를 동어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게으른 무지의 오류를 범하는 일.

함석헌의 대안에 대한 이러한 한계 설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의 종교 윤리적 대안이 갖는 고유한 의의가 빛날 수 있을 것이다.